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곳 호주 퍼스 지역도 지난 3월 중순부터 일상에서 많은 변화들을 새롭게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적인 모임이 금지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2명까지만 함께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시간 이상의 여행지도 금지되어 퍼스 외곽으로의 여행은 못합니다. 호주 안에서 주 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교회 목회자의 성도 심방은 허락되어,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퍼스열방장로교회도 3월 셋째 주부터 예배당에서 하는 주일예배모임을 쉬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누리는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성도들간에 교제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되고, 삶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힘들다고 말하기 보다는, 이 상황을 불평하기 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 지는 것 같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해서 각각 성도들끼리 방문해서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고, 아이들이 있는 집을 위해서는 맛있는 간식도 해서 나누며,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희 집도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출이 힘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의 경건생활을 지속하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신자 가정이 많은데 다시 모임이 시작될 때,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교회를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아내는 재봉틀을 배워서 시간날때마다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재기로 마스크가 품절되어 구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 까 마스크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깨도 많이 아플 텐데, 힘든 기색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마스크를 만들면 심방 겸 성도들에게 배달을 합니다. 꼭 교



회 성도 가정과 지체들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가정들에게도 교회 이름으로 마스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용실에 근무하는 성도를 방문했는데, 아내가 만든 마스크를 하고 있더군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보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각 가정마다 감동과 기쁨을 전하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할 즈음에 두 달의 안식월 마치고 다시 퍼스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오랫동안 통증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자궁검사 결과 자궁내막증이라는 병명을 얻어 수술을 했습니다.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교회와 후원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두 달 머무는 동안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신 저희 부부의 모교회인 황성제일장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한결 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갑상선 치료를 위해 검사를 하고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건강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저희 가정만 함께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전에 두 달이면 시간이 넉넉하겠구나 싶었는데, 아내의 수술로 일일이 후원자분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서울에서 성남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춘천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황성까지 와서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왕상 18:5

로뎀나무는 쉼의 상징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에서 삶의 원기를 찾았기 때문이죠. 2개월간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희 가족 에겐 로뎀나무의 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많은 분들과 교회들을 통해 영육간의 휴식을 가지며 힘을 얻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충을 내던진 병사처럼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지’(이문세,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역현장에서는 어려운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저희 가족을 섬겨주신 모든 교회와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작년 3월 뇌졸중으로 2번째 쓰러지시고 10개월 동안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주위 모든 분들이 놀라실 정도로 빠른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시는 것이 어려워져서 첫째 여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두 달 머무는 동안 잠시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아들을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퍼스에 있는 대학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한 달 동안 다 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매일 부디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현이도 하영이가 다니는 동대학 약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기 초기에는 잠깐 수업을 했는데, 하영이가 대현이를 태우고 학교에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후에 같이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대현이는 한 달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으니 조금은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나가 있어서 대학생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틈타 아이들과 함께 로마서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성경공부이지만 두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돌보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 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힘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늘 건강하세요.

2020년 4월 20일 호주 퍼스에서 윤환식, 박미정 선교사 드림

후원계좌 - 국민은행, 윤환식, 303801-04-243093

이메일 - jdmstaff@gmail.com